두려운 것은 오직 국민 뿐
믿을 것 또한 오직 국민 뿐
양천구을 새누리당
(신월1~7동, 신정3~4동)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언제나 국민편
김용태입니다
기호 1
새누리당
1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ㅇ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양천구 을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새누리당	김용태	남	1968년 3월 26일 (48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졸업	(현)국회의원(18,19대) (현)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928,233	510,408	417,825	해당없음	해당없음	육군상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2016년 제1국민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9,697	없음	없음	- 도로교통법위반 벌금1,000,000원 (1999. 8. 18.)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2,500,000원 (2003. 9. 16.)
후보자	28,144	없음	없음	
배우자	1,553	없음	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해당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해당없음

한 배 탄 마음

비 오는 날,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우산을 내리고 비를 같이 맞는 것

졸지에 벼락 맞은 동네

작년 여름, 메르스가 우리 동네를 덮쳤습니다. 순간 동네가 얼어붙었습니다. 거리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자전거 타고 온 동네 돌아다니는 일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병원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졸지에 벼락 맞은 동네, 졸지에 벼락 맞은 병원.

한 배 탄 마음, 온기가 되살아난 동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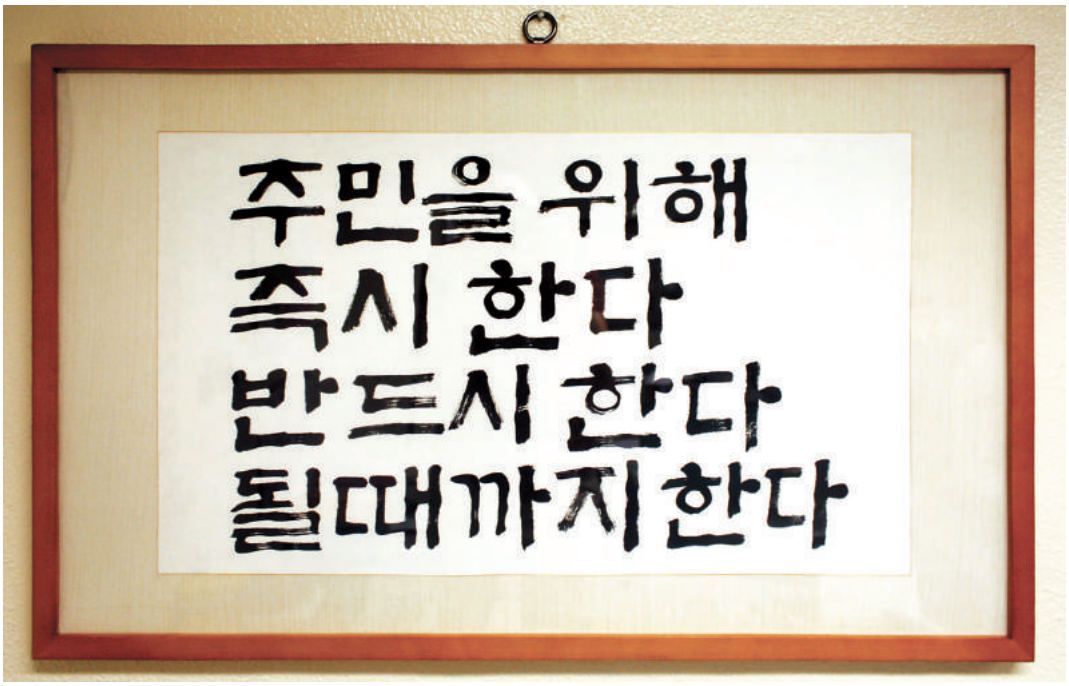
무엇인가를 해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동네를 녹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시장을 보고 식당에 가고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메르스사태 때 우리지역 메디힐병원 방문 모습

"내가 안 움직이면 네가 죽고 우리 다 죽는다." 동네에 온기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동네를 녹인 것은 우리 모두 〈한 배 탄 마음〉이었습니다.

한 배 탄 마음, 처지를 공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네 꽉 막힌 인생을 풀어내는 첫 걸음이라 믿습니다.

우리네 사는 풍경,



김용태 의원실 사훈 1 : 의원과 직원들의 민원의 날 업무 지침

에피소드 한국인이 되고픈 사람 : 안젤라 이야기

스무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으로 돈 벌러 온 여인의 눈물나는 귀화 사연

안젤라(가명), 필리핀 여성. 나이 스물에 돈 벌러 한국에 왔습니다.

타국땅에서 힘들게 일하며 두아이를 얻었지만 직접 키우지 못 하고 필리핀 친정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두아이를 잘 기르려 합니다.

안젤라에겐 꿈이 있습니다. 자신과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녀들에겐 필리핀보다는 한국이 기회의 땅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 만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무실에서 귀화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안젤라 가족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꿈을 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원의 날’ 이야기

지난 7년간 달려온 민원의 날, 132차례 1만5천여명 오셨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팔도강산사거리〉로 오세요

억울한 일, 혼자서는 안 풀리는 사연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셨 습니다. 해결 한 일도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도 많습니다. 칭찬도 받았고, 욕도 먹었습니다. 민원의 날은 저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정치를 계속하는 한 민원의 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에피소드2 이건희 보다 더 부자인 사람 : 차홍자 이야기

폐지 주워 생계를 꾸리던 할머니의 2억여 원 기부 사연

3년 전 돌아가신 고(故) 차홍자 어머니. 살아생전, 단칸방에서 밥 한공기와 짠지가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꾸렸습니다.

제가 본 차홍자 어머니는 단연코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2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이 삭막한 서울, 탐욕이 넘치는 이 도시가 무너지지 않고 굴러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밑바닥 곳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차홍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에피소드3 이혼해야 사는 사람 : 궐석재판 이야기

집 나간 남편 대신 두 아이 생계를 책임진 여인의 피치 못 할 이혼 사연

집 나간 지 몇 년 된 남편. 아이 둘이 있지만 이 엄마는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집 나간 남편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혼해야 살 수 있습니다. 법원에 궐석이혼재판을 신청하면 평균 4개월이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원의 날에 오시면 필요할 경우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천을 발전 신화!

김용태 의원실 사훈 2 : 지역사업 수행을 위한 행동 지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시작 했습니다 다시는 동네 물 안 차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2010년 추석 무렵, 폭우로 온 동네가 물바다가 된 것 기억하십니까?

곧바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수방사업에 쓸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공사는 지금 20%쯤 진행됐습니다.

2017년 겨울까지 완공 예정대로 책임지겠습니다. 공사 상황 수시로 따져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시작 했습니다
생태공원·상업지구개발 마무리 짓겠습니다

7년의 싸움 끝에 삽을 뜬 제물포터널! 지상부는 생태공원으로, 도로 주변부는 상가·숙박시설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성공한 경험으로, 지상부·주변부 개발 사업도 완수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 여름부터 소음피해지역 주민 전기료 지원됩니다
추가로 주민지원사업 확대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항공기 소음피해 법개정안(김용태의원, 김윤덕의원, 정부 발의)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음피해 지역 (방음창 설치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추가로, 소음피해 지역 내 주민분들께는 주민생활시설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산 확보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역 1번, 신정역 1번 이미 완공했습니다
신정네거리역 2번 에스컬레이터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정네거리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청원 때는 무려 6천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서에 서명하셨지요.

신정네거리역 1번과 5호선 신정역 1번은 이미 개통됐습니다.

신정네거리역 2번에 에스컬레이터를 2018년까지 설치하겠습니다.

5호선 신정역도 설치 계획을 곧 세우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맡겨 주십시오

"그래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김용태 의원실 사훈 3 :
마라톤 매니아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말처럼 끝까지 걷지 않고 뛰겠습니다.

돌파해 내겠습니다

신정동 로데오거리 상권이 활력을 잃었습니다. 외국인 특화 쇼핑·문화단지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양천을 지역에 유일한 쇼핑거리인 신정4동 로데오거리(일명 '목동 로데오거리')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덩달아 우리 지역 전체가, 동네 경제까지도 풀이 죽은 느낌입니다.

로데오거리를 중국인 관광객들이 찾을 쇼핑단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많이 계신 최고급 가방, 지갑 장인들과 함께 지역경제 살려 보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돌파해 내겠습니다

신월동에 지하철 노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광역철도 원종-신월-홍대 노선 돌파해 내겠습니다

신월동만 지하철이 안 지나갑니다. 지하철 노선을 유치하겠습니다. 이미 작년 11월 부천원종~신월~홍대입구 노선 착공을 위한 서울시-경기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 3차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반드시 원종-신월-홍대 지하철노선 돌파 하겠습니다.

돌파해 내겠습니다

옛날식 변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가기 싫어합니다
현대식 변기로 전면 교체해 내겠습니다

화장실 가기 겁나 변비 걸리는 아이가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집에 가서 용변을 보고 오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환경 시설 개선보다 더 급한 건 없습니다.

돌파해 내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부지 개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유치, 서울시와 끝장 보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시킬 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첨단물류단지 지상은 벤처기업단지, 문화 시설·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서울시와 협상 끝장 보겠습니다.

사람 사는 그곳, 현장 떠나지

김용태 의원실 사훈 4 : 김용태의원실 주최 남산 혹서기 마라톤 대회 참여한 인턴들

먼저 손을 내미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김용태 의원실 체험인턴 프로그램 이야기

방학 때마다 북적대는 의원실

지난 8년간 학생들 체험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지금껏 약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주 동안의 다양한 체험

기업탐방 진로탐색, 국회 회의 참관, 입법과정 참여. 프로그램의 백미는 청소하기, 인사하기 그리고 마라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일도 없다'는 인턴십 모토에 충실합니다.

도전하세요! 뿌리치는 손이 부끄럽지 먼저 내미는 손은 자랑스럽습니다.

않겠습니다

사람정책 하나. 우리 자식들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급여는 덜 주고 일은 엄청나게 시킵니다.

일을 '가르친다'며 청년들을 고용하고서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시키고 돈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이걸 두고 '열정페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패륜입니다. 내자식이라면 이렇게 대할까요? 우리 자식들 착취하는 '열정페이'를 근절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속히 만들겠습니다.

사람정책 둘. 국산차보다 외제차에 유리한 보험료 뜯어 고치겠습니다

국산차와 외제차 사이에 사고가 나면, 국산차가 잘못을 덜 했어도 보험료 부담은 더 큽니다. 외제차는 수리비가 비싸고 수리 중에 대여해 주는 렌트카도 엄청 비싸다는 게 이유랍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국산차보다 외제차에 유리한 보험료 뜯어 고치겠습니다.

사람정책 셋. 군 장병들 1인 1자격증 취득 지원 법률 만들겠습니다

로마제국은 시민권자만 군인이 되었고, 재산을 소유하고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즉, 국방의무를 가진 사람만이 시민의 권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창 사회진출을 준비할 나이에 국방의무를 다하는 청년들! 군 장병들이 전역 전까지 1인 1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겠습니다.

장병 여러분께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조그만 중화요리 '짜짜루' 집 딸이예요. 5년 전, 제가 고2였을 때 우리집은 저축은행사태로 폭삭 망했습니다. 부모님은 딸내미 대학가서 공부 잘 하라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저축은행에 맡겼었는데 그 돈을 다 날린 것이지요.

"딸에게 너무 미안해요. 이 못난 에미 뱃속으로 그 잘난 딸내미 낳아 너무 미안해요."

엄마는 이 말을 방송에 나와 얘기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는 국회의원이라며 누가 찾아왔습니다.

"방송 봤습니다. 어머니는 미안한 것 없어요. 미안한 사람은 저같은 정치인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 후로 그 사람은 매년 우리 집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국회에서 인턴으로도 일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혼자 내려와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은 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대하시면 꼭 김용태의원실 체험인턴 신청하세요. 운이 좋으면 저랑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 김지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사는 여대생)

저 김용태입니다

충남 대전 출신(68년생)
대전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전 (주)알티캐스트 이사
전 중앙일보 기획위원
18대, 19대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현 새누리당 서울시당위원장
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국회 한·중 차세대 지도자포럼 회장

기호 1 김용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2동 팔도강산사거리 농협3층 T 02-2695-2903 F 02-2607-3860
www.ytnetwork.or.kr 메일 : ytn@na.go.kr 트위터 : @ytnetwork 페이스북 : ytnetwork